

■ 논문요약문1

<p><b>논문제목</b></p>	<p>The sensitivity of reinsurance demand to counterparty risk: Evidence from the us property-liability insurance industry</p>
<p><b>게재정보</b></p>	<p>Journal of Risk and Insurance, vol9999, 2018</p>
<p><b>개요</b></p>	<p>이 연구는 재보험 시장에서의 시장규율 (Market Discipline)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. 재보험회사들은 글로벌 영업을 하는 회사들로, 신용등급회사가들이 사실상 규제자의 역할을 하며, 시장에서의 자율 규제가 재보험사 건전성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연구에서는 미국 손해보험사 자료를 기반으로, 원수보험사들이 재보험사의 신용위험에 대해 재보험 계약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신용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, 재보험계약에 따른 위험이 전 인정 정도에 관한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.</p>
<p><b>연구결과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결과 원수보험시장에서와는 달리 고객이 기관인 재보험사에서는 시장규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담보가 없는 계약의 경우, A등급에서 B등급 이하로 재보험사 신용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재보험 수요의 하락으로 이어졌지만, 100% 담보가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변경과 수요와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재보험 계약을 규제자본완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, 그러한 정황이 어느 정도 있으나,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외의 다양한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시장에서 재보험사의 신용위험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고, 이러한 것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, 일부 주에서 시작한 해외 재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100% 담보가 있을 경우에만 위험 이전을 인정하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습니다.</li> </ul>
<p><b>활용분야 및 기대효과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는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의 자율 기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의 강한 규제는 부작용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. 이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의 시장규율에 대한 이해로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</li> </ul>